

구 히로우미 창고

히로우미 창고는 1889년에 지어진 목골석조 창고로 화물을 싣기 위한 대형 출입구에 설치된 아치형 석재 장식이 특징입니다. 히로우미 가문은 이시카와현 가가의 해운 회사를 운영했으며, 1889년에 오타루에서 창고업을 시작했습니다. 히로우미 가문은 해산물도 거래했으며, 19세기 말에 우콘 가문과 함께 해상 보험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히로우미 가문의 해운 사업은 오사카에 본사를 두었으며, 목조 기타마에부네(北前船, 상품을 매매하면서 오사카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던 상선)와 영국제 증기선을 운항했습니다.

오타루 운하의 북쪽 끝에 있는 다른 창고와 마찬가지로 히로우미 창고는 기타하마 지구의 매립지에 세워졌습니다. 건설 당시에는 창고 바로 앞에 항구가 있고, 데미야역도 몇 백 미터 거리에 있어 육지와 바다를 불문하고 화물의 운송과 보관에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오타루 운하의 건설이 시작된 1914년경에는 창고 앞의 땅이 더 많이 매립되었습니다.